

명인 '광범'

명인 '서봉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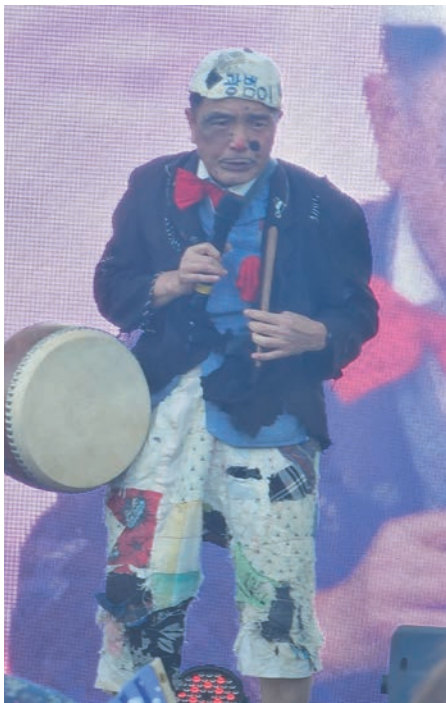
명인 '최민'

제12회 전국 품바 명인전

“올해도 어김없이 동동구르무 메고 웃음 주러 왔소”

광범 · 서봉식 · 최민 등 명인 3명 출동

헤미 · 미스미스터 축하무대... 분위기 UP



올해도 어김없이 동동구르무를 메고, 우스꽝스러운 복장을 입으며 무대 위에 오른 품바 명인들이 특유의 재치있는 입담과 몸짓으로 관객들을 즐겁게 했다.

지난 4일 오후 전주중남문화광장 이곳에서 '제12회 전국 품바 명인전'이 열렸다.

(사)전북문화진흥원이 주최하고 전주매일신문사가 주관하는 전국 품바 명인전은 전주시민들의 꾸준한 사랑과 관심 속에서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 품바 명인전에는 지난해 멋진 공연을 선보인 광범, 서봉식, 최민씨가 변함없이 출연해 많은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품바 명인 중 하나인 서씨는 가수 헤미씨와 함께 이번 명인전의 사회를 맡았다.

무대 위에 오른 품바 명인들은 각자가 준비한 특유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재치있는 입담과 몸짓도 모자라, 음악에 맞춰 노래하고 춤을 추기도 했다. 관객들 중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이 들려주는 노래에 장단을 맞추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듯 통곡을 하다가, 갑작스레 태세전환을 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초대가수인 헤미와 미스미스터도 무대 위에 올라 공연장 내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이렇게 두시간 여 동안 보여준 품바 명인들의 무대는 내년을 기약하며 막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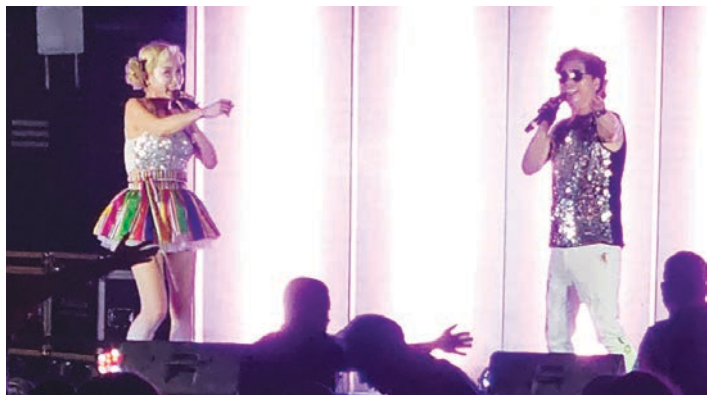
조봉성 전주매일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품바는 사람들의 한이 깊은 소리라고 생각하지만 품앗이, 품삯 등에 쓰이는 ‘품’에서 유래했다고 해 ‘사랑을 베풀 자만이 희망을 가진다’라는 뜻을 가진 전통문화”라며 “약자를 생각하고 서로의 정을 나누는 미풍양속을 계승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이 행사가 여러분들께 큰 기쁨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전국 품바 명인전이 여러분들께 아름다운 추억이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품바 명인전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후원했다. /김재훈 기자 · 사진=양은경 기자



인사말을 하고 있는 조봉성 전주매일 대표



품바 명인전 무대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미스미스터의 축하공연.



사회를 맡은 가수 헤미 (사진 왼쪽)씨와 품바 명인 서봉식씨.

웃대 vs 아랫대... 구경중에 으름 싸움구경!

택견 고수들의 신명나는 한판 승부

전통액션연희극 '쌈 구경 가자', 23일 전주한벽문화관서

사물 · 버나 · 택견, '싸움'이라는 주제로 쉽게 풀어내

"파괴적인 성격 아닌 함께살아가기 위한 치열한 싸움"

이에 따르면 전통액션연희극 '쌈 구경 가자!'는 전통액션연희극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킨 박종욱 연출가의 작품으로 우리의 소리(사물), 놀이(버나), 무예(택견)를 '싸움'이라는 주제로 쉽게 풀어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 부모와 조부모 세대까지 온 가족이 공연장에 둘러앉아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발광엔터테인먼트 이지수 실장은 "쌈 구경 가자는 윗마을과 아랫마을이 모여 실력을 겨루면서도 이긴 마을은 농농사가 잘되고, 진 마을은 발농사가 잘된다며 상생공영을 실천했던 조선시대 택견 경기를 모티브로 한 전통액션연희극"이라며 "싸움을 주제로 한 공연이지만 이번 공연에서 보여주는 싸움은 자극적이고 파괴적인 성격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열정적이고 치열한 싸움으로 도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발광엔터테인먼트는 택견을 기반으로 탈춤, 살판, 사자춤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 활동하고 있는 전문예술단체다.

이번 공연은 발광엔터테인먼트가 주최 ·



'쌈 구경 가자' 포스터

주관하고 전주문화재단과 전주한벽문화관이 후원하고 있다. 예매는 전주한벽문화관 홈페이지와 네이버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전국 최대규모 레지던시 연합교류전 막 올랐다

내달 31일까지 대구예술발전소서... 팔복예술공장 창작스튜디오 작가들 참여

팔복예술공장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들이 참여한 레지던시 연합교류전이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8월 31일까지 대구예술발전소에서 열리며, 전국 9개 지역, 10개 레지던시 기관, 국내외 예술인 74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 교류전으로 주목받고 있다.

참여 기관들은 지역과 장르, 국경을 넘어 다양한 예술적 담론을 공유하며 창작의 확장을 도모한다.

참여 기관은 △팔복예술공장(전주)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서울) △수원아트스튜디오 푸른지대 창작센터(수원) △하이트블럭 천안창작촌(천안) △이응노의집 창작스튜디오(홍성)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청주) △대구예술발전소 △달천예술창작공간(대구) △북구예술창작소(울산) △호랑가시나무 창작소(광주) 등 총 10곳이다.

특히 팔복예술공장 창작스튜디오에서는 8기 입주작가 김원, 박경진, 박성은, 양은경, 용하현, 장시재, 전지홍 등 7인이 29점의 작품을 선보이며, 팔복의 창작 역량을 전국 무대에 알릴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정체성과 자아 △물성과 수행성 △공간과 경계 △일상 △기억과 서사 △테크놀로지와 가상성 △생태와 지속가능성 △사회적 참여와 공공성 등 총 8개 섹션으로 구성, 현대 미술의 주요 화두를 다각도로 조명할 전망이다.

최라기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팔복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들이 작품을 발표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지역 간 협력과 교류를 통해 예술가들의 전문 역량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라기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팔복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들이 작품을 발표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지역 간 협력과 교류를 통해 예술가들의 전문 역량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 자세한 세부 사항을 알고 싶다면 국가유

산진흥원 교육사업팀(☎02-3011-779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디지털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세대가 국가유산의 가치를 직접 느끼고, 우리 지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키울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학교와 복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고 전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군산시는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국가유산교육 체험관 '이어지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2025년 '이어지교'는 군산시 소재의 초·중등학교 및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7월 25일까지(토·일·월 제외) 군산 청소년자치배움터 자문에서 진행된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국가유산 콘텐츠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서는 국가유산 교육 전문가들이 지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공동화석 탐험, 발자리 이야기, 무형유산 탐구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과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전통 놀이와 헤리티지 시네마 등 부대행사와 더불어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시민 등 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여 누구나 문화유산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더 자세한 세부 사항을 알고 싶다면 국가유



2025 레지던시 교류전 포스터

국가유산교육 체험관 '이어지교', 군산 상륙

군산 청소년자치배움터 자문서 진행

산진흥원 교육사업팀(☎02-3011-779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디지털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세대가 국가유산의 가치를 직접 느끼고, 우리 지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키울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학교와 복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고 전했다. /군산=김만호 기자